



2026. 8. 3 (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금리인상 앞둔 은행권, 수익 늘릴 실탄 장전

머니투데이 <https://zrr.kr/XHMog1>

5대은행 예대율이 3년 새 최저치로 하락...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이 함께 늘면서 수신잔액이 두둑해진 반면 대출성장세는 둔화했기 때문
은행들은 최근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가운데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예외까지 거론되면서 하반기 예대마진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

금융당국,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편... '소비자 알권리' 제고

뉴스1 <https://zrr.kr/OMqJrC>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알권리 제고를 위해 가산금리 변동 여부 고시, 세부 우대금리 항목 통지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에 나서는 모습
금감원과 은행권이 논의 중인 부분은 가산금리 인상·인하 폭으로, 예를 들어 0.1%p, 0.2%p 등 특정 폭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 안내할지를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

홍콩 ELS 과징금 제재 9월로 넘어가나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d8cdhA>

금융위원회가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에 대해 추가 감경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권 과징금 제재안 의결이 또 연기
이에 제재안의 최종 결론은 9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

5대銀 주담대 11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마통 6일간 1.8조 늘어

조선비즈 <https://zrr.kr/E1gbGZ>

지난달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마이너스통장(마통)과 주택담보대출 모두 증가세 지속
마통 증가와 함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은 감소한 반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기예금에는 자금이 유입

금융당국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레버리지 ETF 정조준

한국경제 <https://zrr.kr/th7J6h>

금융당국이 증시 급변동 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배율을 직접 낮출 수 있는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
현재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1.5배나 1배 등으로 낮출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

코인원, 한투·OKX 투자 후 '공세'...주식연동 이어 '최저 수수료' 승부수

뉴스1 <https://zrr.kr/CvlMm>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의 투자사인 OKX벤처스의 전략적 투자 이후 서비스와 마케팅을 잇달아 확대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
주식 투자 서비스 연동과 업계 최저 수준의 거래 수수료를 앞세워 이용자 확보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파트너십도 본격화하며 종합 투자 플랫폼으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모습

대형 GA, 중소형 조직 편입 가속...통합 방식은 '각자도생'

보험매일 <https://zrr.kr/8Widh3>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중소형 GA의 설계사와 영업망을 조직 단위로 흡수하며 외형 확대에 속도
설계사를 개별 영입하는 데서 벗어나 기존 조직을 합병하거나 사업부·지사 형태로 편입해 생산력과 영업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

도수치료 관리급여 묶이자 '신장분사치료' 증가

데일리메디 <https://zrr.kr/rkl3ZF>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한 후 다른 비급여 치료인 신장분사 치료가 증가하고, 체외충격파는 가격이 인상
이번 제도 개편이 비급여 진료 오남용 억제에 통한 실손보험 손해율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우회 청구가 확산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변질되고 있다는 관측

스테이블코인 해외 순유출, 서학개미 순매수와 맞먹는다

연합뉴스 <https://zrr.kr/QsGTfx>

가상자산 시장 침체에도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매달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수준
해외 거래소들이 가상자산뿐 아니라 국내 주식 연계 현·선물 상품으로 거래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스테이블코인 유출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

국고채 24시간 즉시 거래...한국판 '비들' 선보인다

서울경제 <https://zrr.kr/SGOUpj>

신한금융그룹이 '한국판 비들(BUIDL)' 추진에 나선 것은 빠르게 커지는 글로벌 국채 토큰 시장에서 원화 자산의 유통 기반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
국고채 중심의 채권펀드를 해외 온체인 자금과 연결하고 장기적으로는 24시간 거래와 담보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금융상품으로 키우려는 것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